

‘동행축제 with 전주글로컬상권’ 성료

3일간 34개 부스·8개 연계공간·5개 빈 점포… 호남권 로컬·소상공인브랜드로 북적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골목안데, 특히 일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기간에 이렇게 개성 있는 브랜드들이 곳곳에서 만나보니 오랜만에 전주가 정말 살아 숨 쉬는 것 같아요.”

지난 4일 오후, 전주시 충경로 인근에서 열린 ‘2025 동행축제’를 찾은 시민 장정수 씨(60대/전주)는 구매영수증을 손에 쥔 채 이렇게 말했다. 장씨는 이날 동행축제 연계 공간 두 곳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구매 영수증으로 팝업스토어에서 로컬브랜드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했다.

전주 글로컬상권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동행축제 with 전주 글로컬상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동 행사는 2024년 선정된 3개 글로컬상권(전주, 수원, 동명) 중 전주에서



진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였다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대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과 지역 소비 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주 뿐 아니라 호남권 로컬 브랜드 및 청년 창업자 34팀이 참여했고, 총 8개의 연계공간,

5곳의 빈 점포가 행사 기간 동안 전시, 판매, IR 라이브커머스 교류공간으로 활용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 축제에 그치지 않았다. 전주국제영화제 시즌과 맞물려 도심 곳곳을 활용한 분산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소상공인들과 로컬브랜드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판로를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전주를 포함한 군산, 정읍, 익산, 강진 등 전라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 쇼케이스 부스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수공예, 전통주, 반려용품, 디퓨저, 도자기, 푸드 브랜드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여졌으며, 관람객들의 체험과 구매, 브랜드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참여 브랜드 중 한 곳인 ‘취향연못’

박은지 대표는 “공간 하나하나가 단순 부스가 아니라 이야기와 철학이 담긴 무대로 꾸며져서, 소상공인들과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는 데 훨씬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행로 팀장은 “이번 동행축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과 로컬 브랜드들이 자신의 제품과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일상 속에서 지역 경제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주)크리톤 전정환 부대표는 “다양한 지역의 창업자들이 함께 모여 소비자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7일부터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지역소재기업은 30억원)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딥테크)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딥테크)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상위 30%)에 대해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이상)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수출 시장, 기술 서비스 분야로 확장한다

중기청, 디지털·인공지능 등 기술 서비스 중소기업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

기술서비스(이하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비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테크 서비스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거나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테크 서비스 수출비우처는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 이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게 됐다.

테크 서비스 수출비우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에 기본 서비스를 특화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센터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이며, 그간 수출비우처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이다.

두 번째,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 지원한다.

그간 수출비우처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리 구성된 서비스 항목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테크 서비스 분야는 더욱 폭넓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아울러 기존 수출비우처 사업의 14개 메뉴판 중 수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메뉴도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수출비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수출지원 사업으로, ‘테크 서비스 수출비우처’ 사업에서도 동일한 수출 마케팅 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 전 임직원 ‘청렴다짐 결의’ 서약식

전북개발공사는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공사 1층 대강당에서 ‘CEO 주관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공사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대근 선임 사장과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첫 공식행사로 ‘청렴다짐 결의’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 했다.

서약식은 전 임직원 청렴서약 문서,

가맹협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면서, 공직 윤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서약식에는 부패 예방 및 청렴한 업무풍토 조성, 알선·정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 의지를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대근 사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이자, 공공기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사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



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사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일상화하고 청렴문화가 내재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콩 농사, 종자 준비부터 심기까지’

농진청, 중부 6월 초중순·남부 6월 중하순이 심는 적기

농촌진흥청은 콩 심는 시기를 맞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종자 준비부터 심기까지 요령을 소개했다.

종자 준비는 파종 전 심기 차례(작부체계)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한다.

알 작물의 생육기간이 길면 일이 일찍 어무는 울릉을 반대로 알 작물의 생육기간이 짧으면 수확량 확보를 위해 중단생종을 선택한다. 종자 파종량은 일반적으로 밭 10아르(300평) 기준 중단생종 콩 약 5kg이다.

종자 소독은 베타밀·티라프 수화제 같은 종자소독제를 사용하면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발아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티라프 액상 수화제는 살균제이자 조류 기피제로, 처리 후 종자를 건조하면 효과적인 소독이 가능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배지 선정은 콩은 논과 밭 모두에서 재배할 수 있다. 논은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 기계 진입이 쉽고, 물갈(관개수로)이 갖춰져 있어 물 관리가 수월하다.

반면 수직 배수가 잘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 온 뒤 기계 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밭은 물빠짐이 원활해 침수나 습해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관개시설이 부족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경지 정리가 안된 곳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재배지 관리에 있어서, 논은 물빠짐이 잘되는 계단식 논이 적합하다.

물 빠짐이 나쁜 평야지 논은 장마나 집중호우에 취약해 습해나 침수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파종 전 가장자리에 골삭기나 맥류 배토기를 이용해 60~80cm 깊이 물길을 만들고 두둑을 조성하면 생육 초기 습해나 장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밭은 물 대기가 가능하고 기계 진입이 쉬운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특히 밭 콩은 꼬투리 맺히는 시기(착형기)부터 종실이 커지는 시기(종실 비대기)까지 수분이 원활히 공급돼야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심는 시기 및 방법은 중부지방은 6월 초중순, 남부지방은 6월 중하순이 적절하다.

/오상근 기자

‘지하수댐’ 기술개발 선도한다

농어촌공,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 착수 기념 발표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하수댐은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



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